

三國時代 封土墳의 護石에 대하여

-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新資料를 중심으로 -

金世基*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封土墳 護石의 성격과 복원 |
| II. 星山洞古墳群의 護石資料 | 1. 護石의 개념과 성격 |
| 1. 護石 조사의 經緯와 조사방법 | 2. 호석의 존재 양상 |
| 2. 새로 확인된 護石資料 | 3. 護石資料로 본 封土墳의 復原 |
| 3. 성산동고분군 호석의 유형과 특징 | IV. 맺음말 |

< 요약 >

영남지역의 삼국시대 고분은 대형 봉토분이 지역별로 군집을 이루고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봉토분들은 일반적으로 封墳 基底部에 원형 혹은 타원형의 護石을 설치하고 있다. 호석은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묘 둘레에 구축한 시설이면서 분묘의 범위를 나타내는 경계선이기도 하다. 이러한 호석 시설은 수혈식 석실의 봉토분 및 횡혈식 석실분은 물론이고 경주의 적석목곽분에도 설치되고 있어 삼국시대 봉토분의 일반적인 축조방식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봉토분의 호석들은 현재는 대부분 봉토 속에 묻혀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원래는 봉분의 밖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삼국시대 봉토분 28기와 기존에 조사된 4기 등 32기의 기저부를 조사하면서 호석의 형태를 면밀히 관찰하게 되었다. 이번에 조사한 32기의 봉토분 중에서 호석을 가지고 있는 고분은 27기였으며, 호석이 없는 고분은 5기에 불과하였다. 즉, 성산동고분군의 봉토분들은 대부분 타원형 호석이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산동고분군의 호석들은 대개 원형 혹은 타원형의 봉분 외연 전체를 둘러 설치하였고, 축조방법은 자연석이나 할석으로 2단내지 3단을 옆으로 누어 바깥 면을 정연하게 쌓은 것이 가장 많고, 할석 1단을 옆으로 돌린 것도 있다. 호석의 높이는 1단 10cm로부터 4단 1m까지 있으나 2~3단 30~50cm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축조방법이나 축조양상으로 볼 때 삼국시대 봉토분의 호석은 대부분 봉분의 밖에 노출되어 축조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곽 호석 관습이 통일신라 이후에 왕릉의 12지상 호석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호석이 있는 삼국시대 봉토분을 복원정비 할 때에는 護石을 封墳 밖으로 노출시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경산대학교 역사지리학부 교수

I. 머리말

우리 나라 三國時代의 考古學研究 자료는 고분자료가 가장 많아 삼국시대를 古墳時代라 부르기도 하고, 古墳考古學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영남지역은 신라, 가야의 고지로 특히 고분군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다.

많은 고분 중에서도 당시의 정치집단과 사회현상 등의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간직하고 있는 대형고분을 보통 高塚古墳 혹은 封土墳이라 하는데 이 봉토분은 규모도 크고 부장유물도 많아 우리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 경향이 출토유물에 의한 시기의 편년이나 형식분류, 교역과 전쟁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고분의 축조과정이나 고분의 축조계획이나 축조과정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¹⁾

그러나 유물의 형식분류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봉토분에서 封墳의 축조계획이나 각 구조물의 위치와 형태 등은 고분 특히, 봉토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연구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봉토분의 호석자료 또한 그런 자료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봉토분에 둘러진 護石은 봉분의 범위와 봉토를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봉분은 매장주체부인 석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면서 외관상 매우 중요한 이미지를 주는 시설이므로 봉분을 보호하는 호석이 갖는 의미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수년간 星州 星山洞古墳群의 封土墳의 基底部를 조사하여 새로운 護石資料를 수집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다른 지역 봉토분의 호석 자료를 분석하여 三國時代 봉토분 호석이 갖는 의미와 호석의 유형 및 축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星山洞古墳群의 護石資料

1. 護石 조사의 經緯와 조사방법

경상북도 성주는 『삼국유사』에서 星山伽耶 혹은 碧珍伽耶의 故地로²⁾ 알려져 온 곳으로 성주군 안에는 성주읍 성산동고분군, 월항면 용각동고분군, 금수면 명천동고분군 등의 삼국시대

1) 고분의 조사방법론이나 봉분축조 과정에 관심을 가진 연구도 있다.

曹永鉉, 1992, [橫穴式石室墳의 調査方法論(1)] 『百濟研究』 23, pp.101~141.

曹永鉉, 1993, [封土墳의 盛土方式에 관하여 -區分盛土現象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 13, pp.31~54.

2) 『三國遺事』 紀異 卷第一, 五伽耶條

봉토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星山洞古墳群은 수량과 규모가 가장 많고 클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뒤의 星山山城을 배경으로 성주의 중심지인 성주읍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성산가야의 중심고분군이라 할 수 있다.<도1>

사적 제 86호인 성산동고분군은³⁾ 이미 일제시대인 1918년에 당시의 고분번호 1, 2, 3호분이 발굴 조사되어 보고된 바 있고⁴⁾, 보고는 되지 않았으나 그 후 또 [大墳]과⁵⁾ [八桃墳]이⁶⁾ 조사되어 일제시대에 5기가 발굴 조사된 바 있다. 그리고 그 후 1986년에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당시 고분번호로 38, 39, 57, 58, 59호분 등 5기가⁷⁾ 발굴조사 됨으로써 모두 10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성산동고분군의 고분번호는 일제시대 1~6호분까지 부여된 번호와 그 후 1970년대 초 성주군에서 파악하여 1~56호까지 부여한 관리번호가 있었는데 양자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고 또한 고분숫자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92년도에 성주군에서는 고분숫자의 정확한 파악과 효과적인 사적관리를 위하여 성산동고분군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이 성산동고분군 정밀지표조사에서는 직경 5m이상 되는 봉토분만을 대상으로 정확한 위치를 1:5000지형도와 지적도에 표시하고, 고분의 규모와 현상을 고분조사표에 기록하여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정밀지표조사에 의해 조사된 성산동고분군의 고분번호는 1~129호까지로 확정되었다.⁸⁾ 일제시대의 고분번호와 1970년대의 관리번호는 모두 이 정밀지표조사 고분번호로 관리하고 있다. 필자는 1986년에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5기의 고분발굴에 참여하였고, 또 정밀지표조사와 고분번호 부여에도 참여한 바 있었다.

그 후 성주군에서는 정밀지표조사로 확정된 성산동고분군에 대하여 사적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복원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 고분복원 사업은 2000년까지 성산동고분군 가운데서도 중심부에 해당하는 봉토분 30여기를 선정하여 잡목을 제거하

3) 1986. 1. 1자로 行政區域 명칭이 面 아래 행정구역은 모두 里로 통일되어 星山洞은 星山里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성산동고분군은 성산리고분군으로 불러야 하겠으나 이미 유적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성산동고분군을 성산리고분군으로 할 경우 다른 유적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원래대로 星山洞古墳群으로 쓴다.

4) 濱田耕作, 梅原末治, 1922, 『大正七年度(西紀一九一八年)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5) 小泉顯夫, 野守健, 1931, 『大正十二年度(1923年)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p.40.

6) 梅原末治, 1972, 『朝鮮古代の墓制』, 日本國書刊行會, 圖版27.

7) 金世基, 1987, [星州 星山洞古墳 發掘調査概報] 『嶺南考古學』 3, pp.183~213.

啓明大學校博物館, 1988, 『星州星山洞古墳 特別展圖錄』

8) 啓明大學校博物館, 1992, 『星州 星山洞古墳群 精密地表面調査書』 (비 인쇄 자료)

고 봉토를 보강한 후 잔디를 입혀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봉분 규모를 확인하여 정확한 봉토를 쌓기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기초조사를 필자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 고분 복원작업의 기초 조사는 주로 대상 고분의 基底部를 조사하여 원래 고분의 규모를 밝히고 복원의 기준을 자문하는 것이었다.

복원대상 고분의 선정은 성산동고분군 중 대형고분이 밀집한 주능선의 정상부에 열을 지어 위치한 대형분을 중심으로 이 고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구릉의 고분을 우선하여 선정하였다. 이것은 성산동고분군 중에서 가장 중심지에 밀집된 대형고분을 위주로 복원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또 밀집된 고분을 중심으로 사적공원화 하여 군민들과 학생들의 문화재 학습장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재애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1단계 복원사업으로 선정된 봉토분 29기에 대하여 기저부 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1993년에 59, 60, 63호분, 1994년에 56, 57, 58, 64, 65, 66호분, 1995년에 46, 47, 48, 53호분, 1996년에 37, 38, 39, 40, 45호분, 1997년에 67, 68, 69, 70, 71, 72호분, 1999년에 55호분, 2000년에 34, 42, 43, 44호분 등 28기를 조사하였다. 여기에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여 호석이 이미 확인된 고분 4기(50, 51, 52, 54호분)를⁹⁾ 포함하면 호석 자료는 모두 32기인 셈이다. <도2>

선정된 대상고분에 대한 기저부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상고분의 봉분과 주위의 잡목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 ② 현재의 봉분 중심과 저부를 지나는 동서남북의 4방향으로 폭 1m의 트렌치를 구획한다.
- ③ 기저부 확인용 트렌치의 굴착범위는 대상고분의 상태에 따라 조정하되 현재 보이는 봉토의 끝 선에서 봉토 안쪽과 바깥쪽으로 각각 2m이상으로 한다.
- ④ 트렌치의 굴착 깊이는 생토면이 노출되도록 한다.
- ⑤ 트렌치에서 호석열이 노출되면 호석열을 따라 호석 부분을 확장 노출시켜 원봉분의 기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호석을 돌린 범위가 봉토기부의 전체인가 부분인가를 판단한다.
- ⑥ 4분 트렌치에서 호석열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 트렌치 사이에 다시 4분 트렌치를 구획하고 굴착하여 8분 트렌치로 확인한다.
- ⑦ 봉분의 일부분이 유실되었거나 도굴 등 인위적인 파괴에 의하여 호석이 없어졌다고 판단

9) 金世基, 1987, 위의 논문.
啓明大學校博物館, 1988, 위의 책.

될 경우에는 남아 있는 선으로 호석열을 추정 복원한다.

- ⑧트렌치 상에 노출된 호석이 4방향 모두 변화 없이 한결같은 경우 기저부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이므로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
- ⑨호석의 조사는 호석의 축조재료와 축조기법을 확인하고, 봉토의 기부와 호석의 접합부를 확인하여 원래의 봉토와 호석의 관계를 파악한다.
- ⑩호석 안쪽과 바깥쪽 봉토의 토층과 축조상태를 확인하여 호석에 덮인 흙이 봉분에서 흘러내려 쌓인 것인지 원래 축조할 때 봉토 속에 넣어 만든 것인지를 판단한다

2. 새로 확인된 護石資料

(1)성산동 34호분

성산동 능선의 가장 아래 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고분으로 주위가 아주 오래 전부터 밭으로 개간되어 있었다. 봉토는 전혀 없어지고 괴석형의 큰 개석 5매만 노출되어 있어 지식묘로 알려져 있던 고분이다. 조사 결과 주변이 모두 삭평되고 봉토의 흔적이 전혀 없어 호석의 유무를 파악할 수 없었다. 내부 구조는 노출된 개석과 일부 벽석으로 보아 길이 5m 정도의 수혈식 석실로 판단된다. 이 석실과 주변의 민묘 등을 감안하여 봉분 규모를 남북 8m, 동서 7m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2)성산동 37호분

성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에서 가지 친 작은 능선이 승왜리 마을로 내려오는데 그 능선 위에 4기의 소형분이 줄지어 위치하는데 가장 위쪽에 자리잡고 있다. 트렌치 확인 결과 호석이 확인되지 않았다. 봉토기부의 토층으로 추정한 고분의 규모는 동서 9.5m, 남북 9m, 현재 봉분의 높이는 1.5m이었다.

(3)성산동 38호분

37호분의 북쪽에 연접하고 있는 고분이다. 유실된 봉토가 두 고분의 저부에 같이 쌓여있어 雙墳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나 조사결과 단독분 이었다. 동서남북 트렌치 모두 현 표토하 10~20cm에서 호석열이 노출되었는데 동서 12m, 남북 8.7m의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60°-E이다. 호석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길이 40cm내외의 산돌을 이용하여 바깥선을 맞추어 평평하게 2단을 쌓았다. 다만 봉토의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호석도 많이 흘러내린 상태이다. 북쪽의 호석열은 39호의 남쪽 호석열과 2.5m 떨어져 있다.

(4)성산동 39호분

연접된 고분 중 북쪽으로 3번째에 위치한 고분이다. 도굴이 특히 심하여 봉분의 원형이 많

이 손상되었다. 트렌치의 동서남쪽의 3방향에서 호석열이 확인되었고 북쪽에서는 소형 석곽의 벽면이 노출되었다. 호석은 표토의 바로 아래에서 노출되었는데 길이 30cm정도의 막돌을 3단 정도 쌓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1~2단정도만 남아 있고 흘러내린 돌들이 마치 호석열을 두겹 두른 것처럼 겹쳐져 있다. 규모는 동서 12.5m, 남북 10m이다. 장축방향은 N-60°-E이다.

(5)성산동 40호분

앞의 고분 3기보다 약간 떨어져 위치하는데 가지능선이 臺地狀으로 평평하다가 급경사를 이루기 직전 약간 불룩한 대지의 꼭대기가 된다. 대지의 동서변이 오래 전에 밭으로 개간되었으나 현재는 경작을 하지 않아 잡목과 잡초가 우거지고 봉분도 아주 작아져 있다. 트렌치 확인결과 현재 남아 있는 봉분은 원래 봉토의 남쪽 일부분이고 호석열은 동쪽과 북쪽의 밭에 넣은 트렌치 확장부에서 노출되었다. 또 북쪽 호석 안쪽에서는 할석조의 소형 부곽도 노출되었다. 남쪽과 동쪽부분은 호석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원래는 있었으나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호석 규모는 남북 12m, 동서 9.2m, 장축방향은 N-25°-W이다.

(6)성산동 42호분

성산의 큰 줄기가 서북쪽으로 퍼지며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구릉의 말단 경사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승왜리 마을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 완만한 경사면에 대형, 중형 봉토분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주위는 오래 전부터 계단식 밭으로 개간되어 높은 봉분이 일부 깎이면서 자연스럽게 고분의 봉토가 밭둑이 된 곳이 많은데 성산동 41호분부터 55호분까지 15기의 고분이 이 구릉 경사면에 집중되어 있다. 41호분은 복원대상이었으나 바로 옆에 붙어서 민묘 3기가 풀 속에서 발견되어 1차 복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성산동 42호분은 봉분의 상부가 완전히 삭평되어 감나무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과수원의 표면에 개석이 노출되어 석실내부가 들여다보인다. 경사진 북쪽 봉분의 저부도 밭둑으로 이용되면서 파괴가 심한 편이다. 호석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기저부의 확인으로 추정한 봉분의 규모는 장경 16m, 단경 15m이며 장축방향은 노출된 석실의 방향인 남북으로 추정된다.

(7)성산동 43호분

43호분 역시 42호분 보다 한단 높은 밭으로 개간되어 감나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봉분은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석실개석 1매와 벽 석이 일부 노출되기도 하였다. 기저부 확인용 4분 트렌치의 남쪽과 서쪽 트렌치의 표토하 10cm에서 호석열이 노출되었으나 경사가 급한 동쪽과 북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석열의 확인을 위해 8분의 트렌치를 넣어 확인한 결과

남쪽과 서쪽사이는 서로 연결되고 있으나 다른 쪽은 나타나지 않았다. 원래 레벨이 높은 남쪽과 서쪽부분에만 호석을 쌓은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다른 고분의 예로 보아 전체에 타원형의 호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성산동 44호분

급하게 내려오던 산비탈이 완만하게 경사지기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43호분 보다 한 단 높은 곳이다. 봉분의 북서쪽 아래 부분은 밭을 만들면서 파내어 봉분이 많이 훼손되었고 남쪽은 민묘를 조성하기 위하여 삭평하였다. 기저부 확인결과 북쪽 트렌치에서만 석열이 일부 노출되었을 뿐 다른 트렌치에서는 호석으로 보이는 석열이 노출되지 않았다. 봉분의 훼손시 호석도 파괴된 것으로 생각된다.

(9)성산동 45호분

45호분 역시 그 중의 하나이다. 기저부 조사 4분 트렌치의 표토하 20cm에서 호석열이 노출되었다. 고분의 남쪽과 동쪽으로 도랑이 흐르면서 봉토를 파괴하여 호석 또한 유실되어 흐트러졌지만 북쪽과 서쪽 호석은 비교적 원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 호석은 막돌을 이용하여 2~3단 겹쳐 쌓았다. 규모는 남북 13.5m, 동서 13m, 장축방향은 N-90°-W이다.

(10)성산동 46호분

46호분은 45호에서 북쪽으로 소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데 봉분의 동쪽에 붙어 작은 개천이 흘러 봉토를 3분의 1가량 유실시켰다. 확인결과 동쪽은 역시 호석이 완전히 멸실되었고, 북쪽 또한 밭으로 경작하면서 훼손하여 남아 있지 않았으나 남쪽과 서쪽이 잘남아 있어 그 곡면을 따라 호석의 선을 추정 복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상복원일 뿐 실제 개울부분은 복원이 불가능하였다. 호석의 축조방법은 서쪽의 경우 길이 60cm, 폭 30cm 정도의 넉적한 돌을 평평하게 2단정도 쌓았고, 남쪽은 길이 20~30cm정도의 작은 돌을 1단정도 돌렸다. 호석의 추정 규모는 남북 15.8m, 동서 13.6m이다.

(11)성산동 47호분

구릉사면이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약간 단이 지는 곳에 위치한다. 이 고분에서 경사 위쪽인 남쪽으로 도랑건너에 46호분이 있고, 바로 북쪽으로는 48호분이 위치한다. 봉분의 상부는 모두 삭평되어 밭으로 되었고, 북쪽은 봉분 경사면이 밭둑이 되어 봉분을 찾을 수 없다. 현재의 밭가운데 이 고분의 석실 개석 1장이 노출되어 석실 내부가 들여다보인다. 노출된 개석의 크기는 길이 2m, 너비 1.5m이며 판석조 석실의 장축방향은 남동-북서향이다. 석실의 남쪽에는 석실과 나란히 할석조의 부곽이 설치되었다.

기저부 확인 트렌치의 서쪽을 제외한 3방향에서 호석열이 노출되었다. 호석이 없는 서쪽 부분에도 호석은 있었을 것이나 서쪽에 형성된 한단 낮은 받을 만들면서 호석이 파괴되어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호석의 규모는 남북 22.9m, 동서(추정) 18.6m의 비교적 큰 고분이다.

(12)성산동 48호분

성산4리(승왜리) 마을 뒤, 완만한 경사지에 밀집된 봉토분 중 가장 북쪽이면서 마을과 바로 이어지는 돌출부에 위치하는데 성산동 고분군에서 최대형에 속한다. 이 고분은 일제시대에 발굴 조사된 [星州大墳]으로 알려져 있지만¹⁰⁾ 정식 보고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이 고분은 원래부터 큰 고분이었지만 동쪽과 서쪽에 받을 만들면서 옆을 파내고 북쪽은 돌출 경사면이기 때문에 현재의 바닥(받)에서 봉분 정상까지 5.6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봉분 중간부분에 약간의 단이 지는 곳이 있는데, 호석 확인 트렌치 굴착조사 결과 이 고분의 호석열은 바로 이 단 위에 원형으로 둘러져 있었다. 호석은 일반적인 막돌로 3단정도 쌓았는데 호석이 둘러진 단 아래 부분의 매우 급한 경사 때문인지 대부분 흐트러져 있었다. 다만 능선이 이어지는 남쪽부분은 원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능선위로 연결된 57호분의 북쪽 호석과 16m 떨어져 있다. 호석의 규모는 동서 25.9m, 남북 20.3m이다.

(13)성산동 50호분

이 고분 역시 봉토분 밀집 지역에 위치하는데 1986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당시 번호 59호분이다.¹¹⁾ 이 고분에서 동북으로 50m 떨어져 49호분, 남서쪽으로 20m 떨어져 52호분, 남쪽으로 40m 떨어져 51호분이 위치한다. 원래는 완만한 사면에 위치한 고분이었으나 주위가 개간되어 봉분은 대부분 삭평되고 북쪽 경사면 아래쪽은 개울에 면한 받둑으로 되어 있다. 발굴 당시 주변이 개인 소유지였으므로 발굴 후에도 봉토 복원을 할 수 없었다. 당시 전면 발굴 조사하였으나 호석은 없었다.

(14)성산동 51호분

이 고분도 봉토분 밀집지역의 남단, 가파른 북쪽사면이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돌출한 경사면에 위치하는데 이것 역시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당시 번호로 38호분이다.¹²⁾ 이 고분

10) 小泉顯夫, 野守健, 1931, 『大正十二年度(1923年)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p.40.

金世基, 1987, [星州 星山洞古墳 發掘調査概報]『嶺南考古學』 3, pp.183~213.

11) 金世基, 1987, 위의 논문.

啓明大學校博物館, 1988, 『星州星山洞古墳 特別展圖錄』

12) 金世基, 1987, 위의 논문.

啓明大學校博物館, 1988, 위의 책.

은 봉분의 외형이 장경 17.5m, 단경 13.8m, 높이 남쪽에서 2.8m, 북쪽에서 5.8m나 되고, 내부구조도 대형 판석조의 수혈식 석실과 2기의 부곽을 가진 대형분이었지만 호석은 없었다.

(15) 성산동 52호분

이 고분은 51호분에서 낮게 내려가는 경사면의 서쪽으로 30m 떨어진 돌출부에 위치하는데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58호분이다.¹³⁾ 또 이 고분에서 북서쪽에 거의 인접하여 53호분, 북동쪽 20m 떨어져 50호분이 위치한다. 원래는 완만한 사면에 입지한 고분이었으나 위쪽이 개간되어 봉분의 대부분이 밭으로 경작되고 봉분 하단부는 경사진 밭둑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이 고분의 봉토 기부에는 원형의 호석이 매우 정연하게 돌아가고 그 축조방법도 비교적 정교하게 3단을 쌓았다. 그리고 석실 중앙개석 위에 길이 20~30cm 정도의 자연석으로 직경 80cm, 높이 40cm 규모의 원형 中心石 무더기를 쌓고, 이 곳으로부터 외곽으로 햇살처럼 퍼져나가는 방사상의 石列 10줄을 쌓고 있다. 이 석열은 봉분 외기부의 호석과 연결되었는데, 봉토를 쌓으면서 같이 시작해 구지표로부터 소형 할석을 한층 놓고 봉토흙을 한겨 덮은 다음 다시 그 위에 돌을 쌓는 방법으로 쌓아 올렸는데 10줄의 간격은 거의 등간격을 이루고 있다. 이 석열은 봉분의 區劃盛土¹⁴⁾ 흔적으로 생각된다. 석열을 쌓은 돌은 호석을 쌓은 돌과 같은 자연 할석인데 호석의 축조가 훨씬 정연하고 정교하다. 호석은 할석을 평평하게 눕혀 계단식으로 쌓으면서 앞서의 石列과 높이를 맞추면서 원형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는 東南半部에만 호석이 남아 있으나 경사가 심한 西北半部 쪽은 배 밭으로 개간되면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호석 직경의 추정 규모는 남북 17.2m, 동서 16.2m이다.<도3>

(16) 성산동 53호분

앞에서 본 성산동 52호분의 북서쪽에 거의 인접하여 위치하는데 북쪽은 개울에 닿고, 서쪽도 밭으로 이어지는 급경사를 이루어 아래에서 보면 매우 오뚝하게 보인다. 이 고분은 일제시대에 발굴되어 보고되지 않고 일부 자료로 소개된 [八桃墳]으로¹⁵⁾ 추정되는 고분이다.¹⁶⁾

이 고분의 기저부 조사중에 봉분 정상부의 표토하 30cm에서 일제시대 제작하여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標石이 발견되었는데, 전체 길이 150cm, 폭 27cm의 화강암을 다듬어 만든 긴 사

13) 金世基, 1987, 위의 논문.

啓明大學校博物館, 1988, 위의 책.

14) 曹永鉉, 1993, [封土墳의 盛土方式에 관하여 -區分盛土現象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 13, pp.31~54.

15) 梅原末治, 1972, 『朝鮮古代の墓制』, 日本圖書刊行會, 圖版27.

16) 金世基, 1987, 위의 논문.

각면체 비석은 위 5cm는 뾰족하게 다듬었다. 지상에 올라오는 부분은 114cm로 매끄럽게 다듬었고 땅에 박히는 부분은 36cm로 거칠게 두었다. 碑面에는 [古蹟第百二十號星州星山洞古墳群]이라 음각되어 있고, 그 반대면에 [朝鮮總督府]라고 음각되어 있다. 그 밖의 다른 2면에는 아무 글자가 없으며, 고분 호수나 세운 날짜는 적혀 있지 않다.

호석열은 현봉토의 하단에 할석으로 2~3단 쌓았는데 경사가 급한 북쪽과 서쪽은 흘러내려 원형이 흐트러져 있다. 호석의 직경은 현재의 봉토의 직경과 같아 남북 17m, 동서 15m이며 장축방향은 N-30°-E이다.

(17)성산동 54호분

승왜리 마을 뒤의 완만한 경사지 과수원의 한 북편에 위치하는데 원래는 완만한 사면에 입지 하였으나 주위가 개간되어 과수원이 된 것이다. 앞의 53호분이나 52호분에서 서남쪽으로 40여m 떨어져 있고 경사면 위로 20여m 떨어진 곳에 55호분이 위치한다. 이 고분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것으로 당시 번호 39호분이다.¹⁷⁾

이 고분도 경사면 위는 과수원으로 개간되어 봉분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었으나 경사 아래면의 봉분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었는데 호석은 없었다. 이 고분 봉분의 규모는 남북 23m, 동서 21m, 높이 1.5~6.5m, 장축방향은 N-45°-E이다.

(18)성산동 55호분

성산동 고분군은 星山에서 뺀 몇 개의 주능선 가운데 하나가 북서방향으로 뺀 내려오면서 점차 낮아져 성산리 마을을 감싸고 있는데, 이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봉토분들이 입지하여 주고분군을 이루고 있다. 55호분은 위의 주능선의 북쪽사면이 완만한 경사로 낮아지는 평지에 위치한다. 고분의 남쪽으로는 주능선 용기부에 위치한 57호분의 봉분 하단자락이 10여m 떨어져 있다. 이 고분도 계명대학교 박물관이 발굴한 당시 번호 57호분이다.¹⁸⁾ 1986년 발굴 당시 이미 주변이 과수원으로 개간될 때 봉분이 완전히 깎여 석실의 개석만 노출되어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를 정리 조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과수원은 사유지인데 주변의 배나무를 베어내고 발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아 노출된 개석을 들어내고 석실과 부곽만을 정리하고 그칠 수밖에 없었다.

17) 金世基, 1987, 위의 논문.

啓明大學校博物館, 1988, 위의 책.

18) 金世基, 1987, 위의 논문.

啓明大學校博物館, 1988, 위의 책.

따라서 당시는 호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후 과수원이 국유지로 매입되고 주변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이번에 기저부를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석실과 부곽 축조 재료와 같은 종류의 막돌로 1~2단을 얹혀 쌓았으나 과히 정교한 축조기법을 보이지는 않는 호석열을 확인하였다. 호석의 규모는 남북 15m, 동서 14m, 장축방향은 N-5°-E이다.<도4>

(19)성산동 56호분

성산동 주고분군 능선의 최하단 용기부에 위치하는 고분으로 일제시대 발굴 조사한 당시 번호 1호분이다.¹⁹⁾ 능선 위쪽으로 57호분이 바로 연결되어 위치하나 57호분의 봉분이 매우 크고 경사가 심해 현재의 봉분에서는 10m 이상 떨어져 있다. 일제시대 발굴조사 방법이 봉분 조사나 주변조사를 하지 않고 내부주체만 조사하는 것이었으므로 호석의 유무를 알 수 없었다. 이번에 고분복원 정비를 하면서 기저부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호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봉분의 삭평이 심하여 호석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기저부 확인과정에서 봉분의 동쪽 끝에 묻혀 있는 일제시대에 제작된 표석을 확인하였다. 표석은 잘 다듬은 화강암으로 전체 길이 150cm, 폭 27cm의 사각기둥 형태이다. 표석의 상부 5cm는 중앙에 꼭지점이 있는 삼각뿔 모양이며 지상에 올라올 114cm 부분은 잘 다듬었고, 땅에 묻힐 36cm는 다듬지 않고 거칠게 두었다. 크기와 형태는 57호분의 표석과 동일하다. 비면에는 정면에 [星州星山洞古墳群], 그 반대면에 [大正八年十二月朝鮮總督府]라고 음각 되어 있었다. 1918년에 이 고분을 발굴 조사한 후 1919년에 표석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다.

(20)성산동 57호분

이 고분은 성산동의 봉토분 밀집지역 주능선의 정상부에서 입지하는 고분 중 가장 큰 대형 봉토분으로 일제시대 발굴번호 2호분이다.²⁰⁾ 일제시대 발굴에서는 할석조 석실1기와 소형석곽 2기로 구성된 다곽분임이 밝혀졌으나 봉토조사를 하지 않아 호석의 유무를 몰랐었다. 이번의 복원정비에서 기저부 조사 결과 정밀하게 쌓은 원형의 호석열이 확인되었다.

호석은 북쪽부분은 급경사면의 6부 선상 표토하 55cm에서 경사면을 따라 약간 흘러내린 상태로 노출되었으나 정연하였고, 남쪽부분은 북쪽과 같은 레벨에서 표토하 25cm에서 폭 50cm 정도의 호석열이 노출되었다. 능선의 방향인 서쪽부분은 경사면의 4부 선상에서 표토하 30cm에서 정연하지만 경사면에 의해 약간 물러난 상태로 노출되었다. 동쪽부분은 58호분과 봉분이

19) 濱田耕作·梅原末治, 1922, 『大正七年度(西紀一九一八年)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pp.2~13.

20) 濱田耕作·梅原末治, 1922, 위의 책, pp.14~22.

연접되어 있어 쌍분처럼 보이고 있었는데, 두 고분의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두 고분을 관통하는 긴 트렌치를 구획하여 굴착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봉토 기부선 보다 30cm 밖으로 나간 지점의 표토하 60~70cm에서 호석열이 노출되었으며, 이 호석열은 봉토의 판축선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 이 호석열에서 동쪽으로 4.4m 떨어진 지점에 58호분의 호석열이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어 두 고분은 쌍분이 아니라 각각의 단독분임이 확실해 졌다. 따라서 이 57호분의 봉토는 호석 안쪽에서부터 판축식으로 다져 쌓은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두 고분이 쌍분처럼 보였던 것은 호석 밖으로 흘러내린 봉토가 호석을 덮고 그 위에 70cm나 쌓이며 평평해졌기 때문이었다.

이 고분 호석의 직경은 남북 22.2m, 동서 20.8m, 장축방향은 N-40°-W이다.

(21)성산동 58호분

성산동 고분 능선이 용트림하듯 방향을 휘어지는 곳에 위치하는데 흘러내린 봉토자락이 57호분과 겹쳐 있는 고분이다. 일제시대에 3호분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발굴조사는 하지 않았다. 기저부 확인결과 원형 호석열이 대단히 정연하게 노출되었다.

경사면으로 이어지는 북쪽 봉토의 끝은 표토하 10cm에서 경사면에 흘러내린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57호분과 접한 서쪽은 표토하 60~65cm에서 막돌로 3단을 쌓았는데 그 폭이 65cm로 어느 호석 보다 정연하다. 그리고 이 호석 안쪽으로 적갈색 봉토가 판축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남쪽부분의 호석은 표토하 15cm에서 폭 1m의 3단으로 쌓되 계단식으로 축조되었는데 하단에 큼직한 막돌을 쌓고 상단으로 갈수록 작은 돌로 쌓았다. 능선의 위쪽이며 59호분쪽인 동쪽의 호석은 표토하 25cm에 폭 50cm로 2~3단 쌓았는데 바깥면을 고르게 맞추어 쌓았다. 호석의 직경은 남북 17.9m, 동서 16.4m이며, 장축방향은 N-25°-E이다.

(22)성산동 59호분

성산동 고분능선이 구부러지는 곳에 위치하는데 서쪽의 58분과는 바로 인접하여 있지만 58분의 위치가 능선의 용트림부분에 해당하여 그 사이에 마을과 마을을 잇는 산길이 나면서 59분 봉분 일부가 잘려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 고분의 동쪽에는 바로 연접하는 60호분과 구분하는 매우 정연한 호석열이 돌아가는데 경사가 급한 북쪽과 남쪽에서 호석열이 연결되지 않고 서쪽부분도 호석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고분의 호석열은 60호분과의 경계선에는 2단으로 축조되어 원형으로 돌아가다가 경사가 심한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곡면으로 보아 경사부분에서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3)성산동 60호분

이 고분은 주능선이 평평하게 뻗는 지점에 59호분과 나란히 연접하여 위치한다. 기저부 확

인 결과 59호분과 연접하는 서쪽부분은 2단의 호석열이 정연하게 돌아가지만 능선 위쪽으로 가면서 1단으로 바뀌며 원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59호분과 경계를 이루는 부분은 40cm 간격으로 가깝게 있지만 고분위치가 능선의 위쪽으로 레벨자체가 30cm 정도 높아 분명히 구분된다. 그리고 59호분과 마주보는 쪽의 호석만 2단으로 바깥 면을 정연히 쌓아 분명한 구분의도가 보인다. 59호분 호석열과 60호분 호석열 사이에는 평평한 돌을 1단으로 얹혀 쌓은 한줄의 석열이 있는데 성격이 확실치 않지만 두 고분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추측된다.

성산동 59호분과 60호분의 기저부 확인은 1993년도에 가장 먼저 실시한 것으로, 당시는 현장에서 상황만 메모하여 봉분의 기저부만 확인해주고 정확한 실측을 하지 않았다. 또 61호분은 일제시대 발굴한 당시 번호 六號墳인데²¹⁾ 이것 역시 기저부선이 분명하여 호석 확인 없이 복원하였고, 62호분과 63호분은 그 이전에 군 자체에서 복원을 완료하여 호석 확인을 할 수 없었다.

(24) 성산동 64호분

성산동의 고분 밀집 주능선에 연접한 9기의 봉토분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데 9기의 봉토분 중 가장 작은 고분이다. 기저부 확인 결과 봉분의 북쪽에서는 현 표토하 50cm에서 호석열이 노출되었고, 남쪽과 능선의 위쪽인 동쪽에서는 현 표토하 20cm에서 호석열이 노출되었다. 호석은 작은 막돌로 2~3단 쌓았는데 다른 고분에 비해 영성한 편이다. 이 고분은 소형 봉토분으로 호석열을 전부 노출시키지 않았다. 호석의 직경은 남북 14m, 동서 11m이며, 장축방향은 N-80°-E이다.

(25) 성산동 65호분

성산4리 마을을 감싸는 주능선이 옆으로 돌면서 생긴 사면의 隆起部에 2기의 소형 봉토분이 쌍분처럼 나란히 자리잡고 있는데 용기부 아래쪽이 65호분, 위쪽이 66호분이다. 이 고분의 아래쪽인 북쪽은 용기부가 끝나면서 급경사를 이루고 위로는 완만하게 용기되어 산줄기에 이어서는데, 주변에 이 고분 2기 외에 다른 고분은 없다. 원형 호석열은 표토하 20cm에서 노출되었는데, 소형 산돌을 옆으로 얹혀 쌓기도 하고, 세워쌓기도 하였다. 경사 아래쪽은 2단을 쌓았고, 위쪽은 1단을 쌓았다. 호석의 규모는 직경 11m의 원형이고, 66호분 호석과는 3.5m 떨어져 있다.

(26) 성산동 66호분

65호분과 나란히 축조된 2기의 소형 봉토분 중 위쪽에 위치하는데, 표토하 10cm에서 호석열

21) 濱田耕作·梅原末治, 1922, 위의 책, pp.23~27.

이 노출되었다. 남아 있는 봉토가 낮아 남쪽과 북쪽의 일부 호석열은 이미 노출되어 있었다. 호석은 막들을 옆으로 눕혀 1단으로 쌓았지만 산으로 이어지는 동쪽은 2단으로 쌓았다. 호석의 직경은 동서 9m, 남북 8m로 거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27)성산동 67호분

성주읍내에서 성산동고분군을 바라볼 때 한눈에 들어오는 봉토분 밀집지역은 성산에서 북서방향으로 뻗는 주능선과 구릉을 이루는 이 능선의 완만한 북사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상에서 기저부를 확인했던 고분들은 모두 이 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고분이었다. 주능선의 위쪽에는 64호분을 끝으로 봉토분은 없고 주능선은 방향을 전환하여 산 위로 연결된다. 이렇게 주능선이 방향을 전환하면서 남쪽으로 파생한 소능선이 남쪽으로 뻗어 가는데 주능선의 평탄면에 67호분과 68호분이 위치한다. 그리고 여기서 남주하는 소능선과 사면에 69~74호분의 6기의 소형 봉토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은 밀집지역의 반대쪽 사면이며 성산4리인 살망태 마을 뒷산이 된다.

이 67호분은 대개 표토하 20cm에서 호석열이 노출되었는데 호석을 쌓은 돌은 일부 할석을 사용한 것도 있으나 냇돌이 많다. 호석열은 타원형으로 이어지나 68호분의 호석과 2.5m 떨어져 있는 남쪽부분은 냇돌 1개만 남아 있다. 이 냇돌에서 70cm 떨어져 파괴된 옹관이 1기 노출되었는데 고분과는 직접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 이 옹관을 설치하면서 호석 일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호석의 직경은 남북 15m, 동서 12m이며 장축방향은 N-25°-W이다.

(28)성산동 68호분

위의 67호분에서 남쪽으로 약간 낮아지면서 가지능선이 반대로 경사져 내려가는데 가지능선의 어깨부분에 이 고분이 위치한다. 도굴과 경사에 의한 유실 등으로 봉분이 거의 파괴되어 원상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호석열도 동, 남, 북쪽 트렌치에서 확인되었으나 정연하지 않고 흐트러져 있다. 다만 남쪽의 호석열은 비교적 원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30cm 정도의 할석을 사용하여 바깥 선을 맞추어 2단으로 쌓고 있다.

호석의 직경은 남북 11.5m, 동서 10.5m이며 장축방향은 N-25°-W이다.

(29)성산동 69호분

성산3리 살망태 마을 뒤의 소능선 급경사가 완만해지는 등마루 양옆에 69호분과 70호분이 나란히 위치하는데, 등마루 양옆에 불룩한 주머니처럼 달려 있어 그 사면은 매우 급한 경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두 고분 모두 계곡의 침식으로 봉토의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남아

있었다. 기저부 확인 결과 원상이 흐트러지기는 했으나 서, 남, 북쪽의 봉토기부에 호석열이 남아 있었다. 할석으로 2단을 쌓은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흘러내려 퍼져있는 상태이다. 남쪽 호석열과 70호분 북쪽 호석열과의 거리는 1m이다.

호석의 직경은 동서 12m, 남북 11m의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60°-E이다.

(30)성산동 70호분

능선 방향의 남쪽에 위치한 이 고분은 사면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형상이라 동남사면의 봉분은 매우 가파르고 봉토의 유실도 심하여 원형을 잃고 있다. 도굴로 내부가 심하게 파헤쳐지고 석실 개석과 벽면 할석들이 마구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호석은 경사가 아주 급한 남쪽 부분만 유실되어 없어졌을 뿐 그 외 부분은 그런대로 원상이 잘 남아 있었다. 호석은 보통 할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축조하였지만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특히 69호분과 1m간격으로 접하는 북쪽 호석열은 더욱 가지런하였다. 호석의 직경은 동서 12m, 남북 11m이며 장축방향은 N-60°-E이다.

(31)성산동 71호분

이 고분은 소능선이 잠시 완만하다가 다시 급하게 남주하는 등줄기의 隆起部에 우뚝하게 솟아 매우 커 보인다. 기저부 확인 결과 동서남북의 4분 트랜치에서 원형으로 돌아가는 호석열이 모두 노출되었다. 표토하 20cm 내외에서 노출된 호석은 할석을 얹혀 쌓기로 3~4단 쌓았다. 특히 동쪽은 커다란 할석을 옆으로 얹혀 4단을 쌓았는데 바깥 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였다. 호석의 높이는 동쪽은 1m, 서쪽과 남쪽은 60cm이며, 북쪽은 경사면인데 비교적 큰 할석으로 낮게 쌓았다. 이것으로 보아 이 고분의 호석은 원래 봉분의 외부에 노출되어 축조되었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쪽의 72호분 호석열과는 2m 떨어져 있다.

호석의 직경은 남북 17m, 동서 14m이며 장축방향은 N-20°-W이다.

(32)성산동 72호분

소능선이 71호분에서 융기하였다가 다시 약하게 휘어지면서 약간 돌출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봉분 아래쪽은 경사로 깎여 나가고 민묘를 조성하면서도 봉분의 상당부분을 훼손하여 내부 석실도 모두 파괴되었다. 그러나 기저부 확인결과 동서남북의 4분 트랜치의 표토하 20cm 내외에서 모두 호석열이 노출되었다. 이 고분의 호석은 71호분과 같이 정연하지는 않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축조하였다. 호석의 직경은 동서 9.5m, 남북 9m이며 장축방향은 N-60°-W이다.

3. 성산동고분군 호석의 유형과 특징

성산동 고분군에서 기저부 확인과 발굴을 통해 호석 자료를 분석한 자료고분은 봉토분 32기이며 이 고분의 호석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참조>

첫째, 전체 조사대상 32기 봉토분 가운데 호석이 확인된 고분이 38호분 등 25기이고, 42, 56호분 등 2기는 호석이 있었으나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어 32기 중 27기에 호석이 축조되었다. 반면에 호석이 없는 고분은 37, 50, 51, 54호분 등 4기이며 34호분은 훼손이 심하여 판단할 수 없지만, 호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도 5기에 불과하다. 즉 전체의 84%에 호석이 축조되었고 16%에 호석이 축조되지 않아 성산동 봉토분의 경우 호석을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분축조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호석이 축조된 고분을 봉분의 규모로 보면 가장 작은 호석 장경 9m, 단경 8m의 56호분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인 호석 장경 25.9m, 단경 20.3m의 48호분까지 매우 다양한데, 봉분의 규모는 호석의 규모와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호석의 축조는 봉분의 규모와 관계없이 봉분 직경 10m이상의 봉토분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셋째, 호석의 평면 형태는 장경과 단경이 다른 타원형이 22기로 대부분이고, 장경과 단경의 차가 1m 미만인 호석을 원형 호석으로 판단하여 5기이다. 이에 따른 장축방향은 특정한 방향을 고집하지 않고 고분이 축조된 입지에 따라 가장 안정된 장축방향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 조사된 52, 55호분과²²⁾ 56, 57호분의²³⁾ 경우 56호분은 단실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부곽식이거나 다곽분인 것으로 보아 원형 호석분은 단실분, 타원형 호석분은 다곽분일 가능성이 있다.

넷째, 호석의 장축방향과 봉분의 장축방향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데 호석과 내부 석실의 장축방향 관계는 발굴자료인 52호분과 55호분의 경우를 보면 호석의 장축방향과 석실의 장축방향은 거의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다.²⁴⁾ 이는 두 고분 모두 주실과 부곽이 나란히 배치된 평면구조이기 때문에 석실과 부곽을 감싸기 위해 호석의 장축방향을 석실의 장축방향과 반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고분 모두 구릉 사면에 입지하고 있는 고분인데 석실 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게 만드는 삼국시대 수혈식 봉토분의 축조방식과²⁵⁾ 일치하고 있다.

22) 金世基, 1987, [星州 星山洞古墳 發掘調査概報] 『嶺南考古學』 3, pp.183~213.

23) 濱田耕作, 梅原末治, 1922, 『大正七年度(西紀一九一八年)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24) 啓明大學校博物館, 1988, 『星州星山洞古墳 特別展圖錄』, p.93, p.97.

25) 金世基, 1985, [竪穴式墓制의 研究 -加耶地域을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17·18, pp.41~89.

金世基, 1995,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경상북도, pp.301~364.

〈표1〉 성주 성산동 고분군 호석 자료

순번	고분 번호	입지	봉분상태(m)				호 석(m)			비고
			장경	단경	높이	장축방향	장경	단경	구조	
1	34	구릉 사면	삭평	·	·	N-15° -E	?	?	?	(미상)
2	37	능선	9.5	9	1.5	N-125° -E	·	·	·	무호석
3	38	능선	10	9	1.2	N-60° -E	12	8.7	2단	타원형
4	39	능선	8	6.5	1.8	N-60° -E	12.5	10	2-3단	타원형
5	40	능선상 대지	7	5	0.8	N-25° -E	12	9.2	1-2단	타원형
6	42	구릉 사면	삭평	·	·	남북(추정)	?	?	?	(타원형?)
7	43	구릉 사면	삭평	·	·	남북(추정)	16(추정)	15(추정)	1단	타원형
8	44	구릉 사면	17	15	2.8	N-60° -E	?	?	?	(타원형)
9	45	구릉 사면	10	8	2	N-90° -E	13.5	13	2-3단	원형
10	46	구릉 사면	9	8	2.8	N-50° -E	15.8	13.6	1-2단	타원형
11	47	구릉 사면	17	15	2.5	N-25° -E	22.9	18.6	2-3단	타원형
12	48	구릉 사면	27	21.5	5.6	N-35° -E	25.9	20.3	2-3단	타원형
13	50	구릉 사면	삭평	·	·	남북추정	·	·	·	무호석
14	51	구릉 사면	20	18	2.9	N-70° -E	·	·	·	무호석
15	52	구릉 사면	삭평	·	·	N-51° -E	17.2	16.2	2-3단	타원형
16	53	구릉 사면	17	15	3.1	N-30° -E	17	15	2-3단	타원형
17	54	구릉 사면	21	17	3.3	N-45° -E	·	·	·	무호석
18	55	구릉 사면	삭평	·	·	N-5° -E	15	14	1-2단	타원형
19	56	주능선 하단	11.0	10.9	1.4	N-80° -E	?	?	?	(원형)
20	57	주능선	25	24	4.5	N-40° -E	22.2	20.8	2-3단	타원형
21	58	주능선	17	16	3.5	N-25° -E	17.9	16.4	2-3단	타원형
22	59	주능선	22	14	1.5~1.8	N-40° -E	?	?	2단	타원형
23	60	주능선	13	13	2.5	N-35° -E	?	?	1단	원형
24	64	주능선	13	9	1	N-80° -E	14	11	2-3단	타원형
25	65	사면 용기부	11	10	1.9	N-20° -E	11	11	1-2단	원형
26	66	사면 용기부	8	7	0.7	N-65° -E	9	8	2-3단	타원형
27	67	능선상 대지	14	9	0.3~1.7	N-25° -E	15	12	1단	타원형
28	68	능선상 대지	9	8	0.8	N-25° -E	11.5	10.5	2단	타원형
29	69	능선사면	8.3	6.2	0.5~1.7	N-60° -E	12	11	2단	타원형
30	70	능선사면	8.5	7	0.3~1.7	N-60° -E	12	11	1단	타원형
31	71	소능선	14	12	2.9	N-20° -E	17	14	3-4단	타원형
32	72	소능선	7.7	7	2.2	N-60° -E	9.5	9	1단	원형

다섯째, 호석의 축조재료는 거의 전부가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석과 할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 할석들은 일반적으로 석실이나 부곽 등 내부구조의 축조재료와 동일한 것이다.

여섯째, 호석의 구조는 1단축조와 다단축조로 나눌 수 있는데 다단축조의 경우 ①1~2단을 쌓은 것 ②2~3단 쌓은 것 ③3~4단 쌓은 것 등 복합된 3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1단 호석은 5기인데 직경 10~15m의 중소형 규모에 나타난다. <도4>

1~2단 호석은 6기인데 1단 호석과 마찬가지로 중소형 봉토분에 나타나고 있다. 2~3단 호석은 11기로 가장 많은데 직경 10m 내외의 소형분과 직경 15m 내외의 중형분은 물론 직경 20m 이상의 대형분에도 나타나고 있어 성산동 고분군의 호석구조는 2~3단 축조가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3~4단 쌓은 고분은 중형분인 71호분 1기뿐인데 중심고분군이 아닌 반대 능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입지한 고분이다.

일곱째, 호석을 1~2단 혹은 2~3단의 복합구조로 축조한 것은 고분입지가 경사면일 경우가 대부분인데 레벨이 낮은 아래쪽에 1단 혹은 2단을 쌓고 오히려 레벨이 높은 위쪽에 2단 혹은 3단을 쌓아 경사 아래쪽 보다 위쪽을 보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32, 33호분과 상통하는 방법으로 봉토를 균형있게 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⁶⁾

그리고 호석을 2~3단 쌓을 때는 바깥 면을 정연하게 맞추어 축조하고 있다. 특히 다른 봉토분이 가까이 있거나 연결하고 있을 경우 연결한 쪽을 더욱 정연하게 쌓아 두 고분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여덟째, 호석의 높이가 가장 낮은 것은 55호분의 1단 축조 10cm이고, 가장 높은 것은 71호분의 4단축조의 1m이다. 52호분의 경우도 발굴 당시 3단 축조에 80cm 높이였지만 원래는 4단 이상의 축조에 1m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3단 축조에 높이는 30~50cm가 보편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호석이 없는 고분은 봉분 기부에서 20m 이내에 다른 봉토분이 없는 단독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호석이 없는 51호분이나 54호분의 예를 보면 대개 주위에 다른 고분이 없는 단독분이었다. 50호분의 경우도 가장 가까운 52호분과의 거리가 20m 이상 떨어져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열째, 성산동 고분군의 호석의 역할은 봉토의 유실방지와 경계구분 등 고분 호석의 일반적

26) 金鍾微, 1981, 『高靈池山洞古墳群』 啓明大學校博物館, pp.15~17.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52호분과 같이 봉토내부의 석열과 연결되어 봉분의 구획성토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도3>

Ⅲ. 封土墳 護石의 성격과 복원

1. 護石의 개념과 성격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封土墳은 高塚墳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高塚, 혹은 古墳 등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²⁷⁾ 이렇게 용어가 다양한 것은 墳丘의 형태를 가지고 무덤을 구분할 때 분구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의미까지를 내포한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²⁸⁾

따라서 封土墳이란 墳丘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고분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고분변화의 수준 단계를 논의할 때는 보통 高塚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어떠한 고분의 발전 단계를 분구를 기준으로 墓→墳→塚으로 하거나²⁹⁾ 墳墓→古墳→高塚으로 하거나³⁰⁾ 논의되는 모든 무덤이 매장시설을 축조하고 이를 덮을 때 흙을 쌓아 일정한 높이와 범위를 갖는 무덤을 여기서는 모두 봉토분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봉토분 호석의 사전적 개념은 매우 단순한 편이다. 우선 호석에 대하여 설명한 몇 가지의 예를 보면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에서는 호석을 [돌레돌]이라고 표현하고 '무덤의 가장자리 기슭에 둘러진 돌'이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참고로 '돌덧널무덤(石槨墓)' 항에서도 면으로 보충하고 있다.³¹⁾ 그리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무덤의 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이며 '列石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다.³²⁾ 이 사전의 호석 설명은 주로 통일신라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왕릉에 나타나는 호석과 12지석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韓國考古學概說』에서도 '고신라 고분에도 봉토돌레에 護石이 둘러졌지만, 통일신라

27) 金龍星, 1996, [林堂 I A-1號墳의 性格에 對하여 -高塚의 始原的 樣相-] 『碩晤尹容鎮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pp.311~343.

28) 李熙濬,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pp.51~60.

29) 李熙濬, 1998, 앞의 논문.

30) 金龍星, 1996, 앞의 논문.

3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4,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p.31 및 p.27.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 pp.900~902.

기 왕릉에는 그 호석에 12支石을 배치하고, 능 앞에 唐의 陵制에 따라 石人·石獅를 배치한 예가 남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十二支石形式의 발전 서열은 반드시 王의 年代 서열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여³³⁾ 역시 통일기 왕릉 호석의 12지석을 중점 설명하고 있다.

위에 보이는 사전적 의미와 발굴자료를 통해 볼 때 호석은 지역이나 묘제에 관계없이 봉분 직경 10m 정도 이상의 분구를 가진 봉토분에는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분묘 축조의 한 구조이다. 따라서 수혈식 석실분을 비롯하여 횡혈식 석실분과 적석목곽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봉토분에는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護石의 개념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護石은 封土墳에서 封墳의 범위를 區劃한 석재시설물로서 봉분의 基底部 가장자리에 둘러 쌓은 石列을 의미한다. 이 호석의 역할은 그 분묘의 墓域을 나타냄과 동시에 다른 분묘와의 境界와 그 고분의 規模를 표시한다. 또한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외관을 미장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봉토분의 중요한 시설물의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

2. 호석의 존재 양상

봉토분에 호석이 존재하는 고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혈식 석실분이나 횡구식, 횡혈식 석실분, 적석목곽분이었다. 그러나 사실 매장 시설의 규모도 상당히 부장 유물의 양이나 질로 보아도 결코 수혈식 고분에 뒤지지 않을 대형 목곽묘에는 호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나 양동리 고분군, 부산 북천동고분군의 대형 목곽묘에는 어느 정도의 봉토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호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역시 호석은 돌을 많이 사용하는 분묘 축조기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 예외적으로 경주의 소형 적석목곽분의 경우는 원래부터 봉분이 없이 적석과 호석만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도 상당수 있어³⁴⁾ 호석이 봉토분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역시 고분의 호석은 봉토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호석이 둘러진 봉토분들이 집중 분포하고 호석 또한 정연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부분 영남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高靈, 陝川, 星州, 昌寧, 慶山, 慶州地域 등 신라와 가야의 고지로 原三國時代부터 小國이 존재하였던 지역의 봉토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주지

33)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 第三版, 一志社, pp.262~263.

34) 崔秉鉉, 1981,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下) -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32, pp.1~83.

역 적석목곽분의 호석자료는 이미 적석목곽분의 모형 분류와 그에 따른 축조상태의 연구로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³⁵⁾ 생략하고, 성주의 호석 양상은 위에서 상세히 고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고령, 합천, 창녕, 경산지역 봉토분의 호석 존재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고령지역

고령지역은 대가야의 國都로 잘 알려진 지역으로 지산동고분군은 가야최대 최고의 고분군이다. 여기 봉토분은 전형적인 가야고분 입지인 산성을 배경으로 한 주능선의 정상부에 고대한 봉분을 가진 봉토분을 연결하여 조영하고, 주능선의 방향을 따라 그 사면과 대지상의 용기부에 대소의 봉토분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³⁶⁾

이와 같이 지산동고분군의 고분은 경사면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석의 존재 양상도 그 지형에 따라 축조방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산동 고분군에서 조사된 봉토분은 일제시대에 조사된 것을 제외하고 지산동 44, 45호분,³⁷⁾ 지산동 32~35분,³⁸⁾ 지산동 30호분³⁹⁾ 등 7기인데 7기 모두에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호석이 둘러져 있었다.

지산동 44호분은 묘역 중앙에 주실과 부장실 2개를 배치하고, 이 석실을 호위하듯 32기의 순장곽을 배치한 다음 호석으로 이들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호석의 규모는 동서 27m, 남북 25m이며, 석실을 축조할 때 경사진 바닥에는 흙을 쌓아 수평을 맞추고 그 위에 호석을 설치하였다. 호석을 쌓은 방법은 경사진 쪽은 3겹으로 쌓되 안쪽이 낮게 바깥쪽은 높게 쌓아 1m의 높이로 하였고, 나머지는 2겹으로 쌓아 바깥쪽이 50cm의 높이로 하여 호석 외연이 정연하게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⁴⁰⁾

45호분의 경우는 고분의 외곽에 호석을 둘러놓았는데, 경사가 급하지 않은 동북쪽과 서북쪽은 큰 할석 한 두 개를 띄엄띄엄 불규칙하게 놓았다. 경사가 급한 서남과 동남, 남쪽은 암반을 깎아 단을 지어 2단으로 놓되 지형에 따라 두세 겹 놓은 곳도 있다. 호석열은 처음 조사시 대부분 흙 속에 묻혀 있었으나 축조당시부터 봉토에 덮여 있었는지 층위상 확인할 수 없었다.⁴¹⁾

35) 崔秉鉉, 1981,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上, 下) -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31, 32, pp.1~59, pp.1~83.

崔秉鉉, 1981, [古新羅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 『韓國考古學報』 10·11, pp.137~228.

36) 金世基, 2000, 『古墳資料로 본 大伽耶』 啓明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pp.73~76.

37) 高靈郡, 1979, 『大伽倻古墳發掘調査報告書』

38) 金鍾徹, 1981, 『高靈池山洞古墳群』 啓明大學校博物館.

39)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1998, 『高靈池山洞30號墳』

40) 尹容鎮, 1979, [高靈池山洞 44號古墳 發掘調査報告] 『大伽倻古墳發掘調査報告書』, 高靈郡, pp.12~14.

41) 金鍾徹, 1979, [高靈池山洞 第45號 古墳發掘調査報告] 『大伽倻古墳發掘調査報告書』, 高靈郡, pp.201~202.

그러나 지산동 32호분과 33호분의 호석은 자연경사면에 따라 경사진 쪽은 얇게, 평탄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높게 축조하고 있다. 이는 평탄한 곳에 높게 설치해야 봉토를 균형있게 쌓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호석들은 일부 붕괴되어 돌담식으로 보이거나 원상을 보이는 쪽에는 2단의 계단식 축조양상이 보이고 있다. 즉 활석으로 外列을 50~60cm 쌓고 그 선단에서 안쪽으로 약 50cm가량 들여세워 낮게(높이 20cm) 內列을 쌓았다.⁴²⁾ 이것은 내열은 봉토 속에 들어가고 외열은 봉분 밖에 나와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산동고분군에서 호석의 역할과 존재양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34·35호분의 雙墳護石이다. <도5> 우선 평면상에서 두 고분의 호석 관계를 보면 2기의 圓形護石이 근접하여 돌고 있고 그 사이에 소규모의 半圓狀의 호석이 끼어 있어 마치 두 개의 大圓環을 小環이 중간에서 걸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결 소환은 35호분에 붙여 축조한 連結石槨의 호석인데 두 고분의 주인공과 親緣關係가 있는 어린아이의 무덤이었다. 이러한 호석의 관계로 35호분→연결석곽→34호분이 축조순서를 알 수 있고 두 고분이 연접하는 쪽의 호석은 더욱 높고 정연하게 쌓아 분명히 구분하고, 두 고분을 연결하는 것은 반원상의 연결석곽 호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⁴³⁾ 이는 성주 성산동 57, 59호분 및 59, 60호분 사이의 호석 관계와 유사하며 호석이 봉분의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공통의 예이다.

(2) 합천지역

합천지역의 봉토분은 황강 중상류인 반계계 고분군과 황강하류인 옥전고분군에 주로 분포하고 발굴조사도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반계계 고분군은 4기의 봉토분을 조사하였는데⁴⁴⁾ 3기에서 호석이 둘러져 있었고 1기는 훼손이 심하여 잘 알 수 없었으나 고분의 입지나 묘제, 출토유물 등이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같으므로 호석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옥전 고분군은 가야소국 중의 하나인 多羅國의 고지로 묘제와 유물에 在地色이 강하다가 고령양식으로 변하는 지역이다. 30여기의 봉토분 중 8기가 발굴조사되었는데⁴⁵⁾ 모두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호석이 확인되었다. 이 지역 고분의 매장 주체부는 원삼국시대부터의 전통 묘제

42) 金鍾徹, 1981, 『高靈池山洞古墳群』, 啓明大學校博物館, pp.9~17.

43) 金鍾徹, 1981, 위의 책, pp.61~63.

44) 김정완 외, 1987, 『陝川礪溪堤古墳群』, 國立晉州博物館.

45) 趙榮濟·朴升圭, 1990, 『玉田古墳群Ⅱ-M3號墳』, 慶尙大學校博物館.

趙榮濟 外, 1992, 『玉田古墳群Ⅲ-M1, M2號墳』, 慶尙大學校博物館.

趙榮濟 外, 1992, 『玉田古墳群Ⅳ-M4, M6, M7號墳』, 慶尙大學校博物館.

趙榮濟 外, 1992, 『玉田古墳群Ⅲ-M10, M11, M18號墳』, 慶尙大學校博物館.

인 목곽묘에서 수혈식 석실묘, 횡구식 석실묘, 횡혈식 석실묘로 변화하는 묘제의 계기적 발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호석은 이 지역 전통 묘제인 보강석목곽묘(위석목곽묘)⁴⁶⁾부터 채용되어 횡혈식 석실분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옥전고분군의 호석은 할석을 이용하여 경사가 있는 낮은 쪽은 여러 겹으로 보강하고 높은 쪽은 얇게 쌓는 일반적 축조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발굴이 끝난 봉토분은 모두 복원하였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호석을 봉분 외곽에 노출시켜 복원하였는데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M1, M2호분의 경우는 호석열이 정연하지 않고 경사가 낮은 동쪽은 훼손되어 원상이 확실치 않다.

(3) 창녕지역

창녕지역은 非火加耶의 고지로 일제시대부터 주 고분군인 校洞古墳群에서 5, 6, 7, 8, 10, 11, 12, 89호분 등 봉토분 8기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정식 보고되지 않아⁴⁷⁾ 호석의 유무는 알 수 없다. 그 후 1992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교동고분군 복원 계획에 따라 1~5호분까지 5기를 발굴조사 하였는데 횡구식 석실분의 구조인 이 고분들은 매우 정연하게 쌓은 호석을 두르고 있다.⁴⁸⁾ 특히 1호분과 3호분은 호석과 봉분이 양호하여 호석과 봉분의 축조과정과 의미를 잘 보여주는 양호한 자료가 검출되었다. <도6>

즉, 교동 1호분은 봉분 외곽에 원형의 호석을 들렀는데 냇돌과 막돌을 섞어 경사진 쪽은 9~10단, 그 외부분은 4~5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 호석열 안쪽부터 산흙과 점토를 교대로 다지며 版築式으로 쌓아 올린 흔적이 잘 나타나고, 봉분 평면상에 16줄의 검은색 점토띠가 중심부를 향해 放射狀으로 퍼져있는데 이 粘土線도 호석의 안쪽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점토띠는 봉토를 쌓을 때 區劃盛土를 위한 區分線으로 보이지만, 판축 층위와 구획성토의 기준이 호석 안쪽에서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 호석열 바깥면에 바로 붙어서 1.5m간격으로 직경 30cm정도의 기둥구멍이 돌아가고 있는데,⁴⁹⁾ 이것은 호석과 봉토를 효과적으로 쌓기 위해 버팀목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고분축조에 기둥을 세운 것은 둥근 냇돌로 석실을 축조한 함양 백천리 1호분의⁵⁰⁾ 석실과 경주 천마총의⁵¹⁾ 적석부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46) 金世基, 1992, [玉田 M1, M2號墳의 墓制에 대하여] 『제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회요지』, pp.70~72.

47) 穴澤和光·馬目順一, 1975,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 60-4, pp.327~379.

48) 沈奉謹 外, 1992, 『昌寧校洞古墳群』, 東亞大學校博物館.

49) 沈奉謹 外, 1992, 위의 책, pp.28~40.

50) 釜山大學校博物館, 1986, 『咸陽白川里1號墳』

5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天馬塚 發掘調査報告書』

이는 봉토분의 축조가 치밀한 기획성과 축조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봉분의 축조는 먼저 기저부 외곽에 원형의 호석을 1~3단 쌓은 다음 구분성토 구획을 위한 점토선을 그은 뒤 주위에서 채취한 산흙과 점토를 판축식으로 다져 호석 높이까지 쌓는다. 봉토가 일정높이에 이르면 다시 호석을 추가하고 봉토쌓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창녕지역은 교동교분군 이외에도 이미 1970년대에 계성고분군⁵²⁾ 계남리고분군⁵³⁾ 등이 조사되었는데 역시 대부분의 봉토분에서 호석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솜리 A지구1호분은⁵⁴⁾ 매장부를 넷돌로 쌓은 횡구식 석실분인데 호석도 석실과 마찬가지로 넷돌을 이용하여 2~3겹으로 넓게 쌓았다. 발굴당시는 호석이 무너져 강자갈 무더기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바깥면을 정연하게 맞추어 3~4단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봉토 단면도에 의하면 호석은 봉토외면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평면도를 보면 동쪽 호석의 중간에서 석실의 중앙으로 이어지는 2~3개의 넷돌로 된 석열이 있다. 이 석열은 봉분의 양쪽에서 성토하는 양분성토 방식의 구분석열로 파악되는데⁵⁵⁾ 그렇다면 이 석열이 호석으로부터 시작되므로 호석은 봉분 구획 성토의 기준선도 되는 것이다. <도7>

(4)경산지역

경산지역은 押督國의 고지로서 林堂洞을 비롯한 많은 곳에 삼국시대 봉토분이 존재하고 또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봉토분에서는 일반적으로 호석이 둘러져 있는 것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그러나 임당동 고분군의 호석은 다른 지역과 달리 봉토분이 시기를 달리하며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호석열도 원형, 반원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林堂洞 2호분은 주부곽을 가진 고분2기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봉분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서 선축된 남분에는 원형의 호석이 둘러졌고, 후축된 북분은 남분호석에 붙여 타원형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임당동 5, 6, 7호분은 3기는 봉분이 연결되어 있는 봉토분인데 역시 선축된 북쪽의 7호분은 원형의 호석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축조된 6호분은 7호분 봉토에 연결하여 축조하였고 후축된 5호분은 6호분 봉토에 잇대어 외형이 식빵처럼 보이는 고분이다. 이와 함께 호석도 7호분은 圓形이며 6호분은 7호분의 남쪽 호석열의 1/3부분에 이어지는 반원형

52) 慶尙南道, 1977, 『昌寧桂城古墳群』

53) 國立博物館, 1968, [雜報] 『美術資料』 12.

李殷昌 外, 1991, 『昌寧 桂城里古墳群-桂南1·4號墳』, 嶺南大學校博物館.

54) 鄭澄元, 1977, [A地區 古墳發掘調查報告] 『昌寧桂城古墳群』, 慶尙南道.

55) 曹永鉉, 1993, [封土墳의 盛土方式에 關하여 -區分盛土現象을 中心으로-] 『영남고고학』 13, pp.31~54.

으로, 5호분은 6호분 半圓形 호석의 남쪽에 또 잇대어 반원형으로 돌리고 있다.⁵⁶⁾ 이것도 역시 원래는 호석열이 봉분의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호석의 반원형 연결은 경주 미추왕릉 지구의 적석목곽분에 많이 보이는 것으로 경주의 경우는 봉토 없이 護石과 積石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⁷⁾

3. 護石資料로 본 封土墳의 復原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봉토분 기저부에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호석을 축조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봉토를 축조하는 것은 삼국시대 봉토분의 일반적인 축조방법이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봉토가 흘러내리고 도굴이나 개간에 의해 봉분의 상당수가 훼손되어 호석열은 겹으로 드러나지 않고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 각 지역에서 고분의 봉토를 복원하고 잔디를 입히는 등 유적정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복원대상 고분 원래의 봉분 범위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저부를 발굴하면 현재 表土에서 20~30cm 아래에서 호석열이 노출되고 있다. 50cm 정도로 깊이 묻혀 있는 것도 있으나 드문 일이고 얇은 것은 10cm 이내로 얇게 묻혀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 호석이 이렇게 얇게 묻혀 있다는 것은 원래부터 봉토 끝에 얇게 묻혀있었거나 아니면 원래는 봉토 기저부의 밖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흘러내린 봉토가 호석을 덮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성주 星山洞古墳群의 호석 자료와 각 지역 봉토분 호석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그 유형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호석의 종류는 원형과 타원형을 기본으로 하며, 특수한 경우 반원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②호석의 높이는 1단으로 된 것도 있으나 2~3단이 가장 많고 높은 것은 4~5단도 있다. ③호석은 고분 축조시 중앙 석실을 둘러싸는 封墳의 基本線이 된다. 우선 封墳 基底部에 基本護石을 두르고, 호석 안쪽으로 版築式으로 봉토를 쌓아 일정한 높이가 되면 다시 호석을 계획된 만큼 높인다. 이것은 봉토를 완전히 쌓은 다음 외연을 깎아내고⁵⁸⁾ 판석으로 호석을 설치하는 통일기의 왕릉과는 다른 방법이다. ④호석의 축조는 봉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封土維持를 위해 경사가 심한 부분은 더욱 段을 높이거나 안쪽에 계단식으로 2~3겹을 더 쌓기도 한다. ⑤여러 기의 고분을 근접하여 축조할 때는 다른 고분의 봉분과 근접하는 쪽의 호석을 더욱 높고 정연하게 쌓는다 ⑥호석의 외면이 가지

56) 鄭永和, 1983, [林堂洞古墳發掘概報] 『韓國考古學年報』 10, pp.23~26.

57) 崔秉鉉, 1981,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下) -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32, pp.1~83.

58) 曹永鉉, 2001, [嶺南地方 後期古墳의 築造推移] 『6~7세기 영남지방의 고고학』, 嶺南考古學會, pp.91~114.

런하고 정연하며, 30~50cm의 높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호석은 봉분 외부에 노출되어 축조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를 종합하면 봉토분의 호석은 치밀한 墳墓 築造企劃에 의하여 쌓여진 것으로 봉분의 범위와 경계를 정하는 기준선이고 봉토축조의 출발선이다. 또한 호석은 高大한 봉토를 쌓기 위한 版築의 起點이며, 그 관측을 효율적으로 성토하기 위한 봉토의 區劃盛土(兩分區劃, 12分區劃, 16分區劃) 기준점도 된다.

따라서 호석이 있는 봉토분을 복원할 때 이제까지는 호석을 봉토속에 묻어 복원하였는데 앞으로는 봉분 외부에 노출시켜 복원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봉토를 복원한 고분군 가운데 합천 옥전고분군만 호석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복원하였는데 매우 타당한 복원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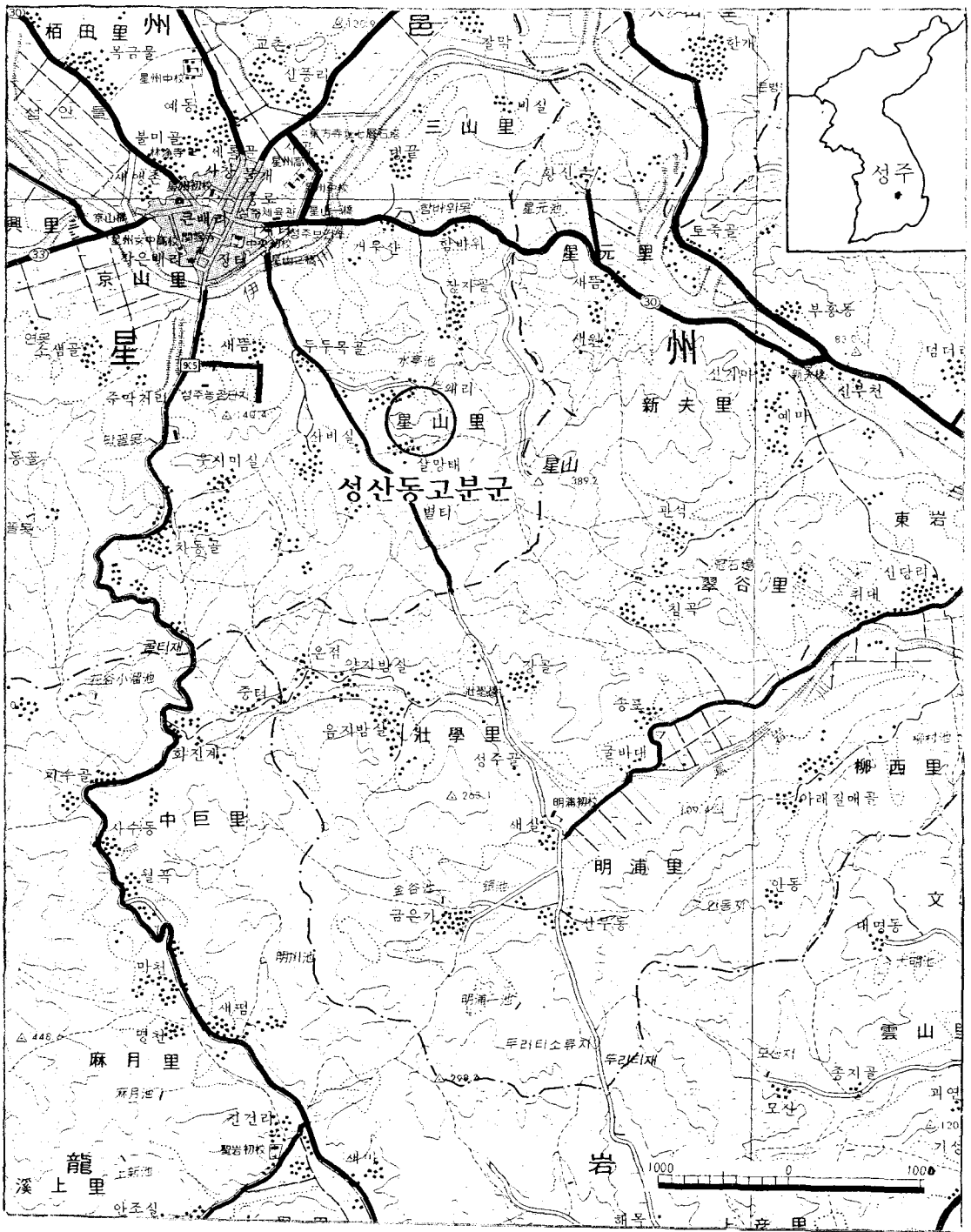
지금까지 성주 성산동고분군에서 봉토분 기저부 조사에서 확인된 新資料와 기존에 조사되었던 봉토분의 호석자료를 분석하여 삼국시대 영남지방에 많이 분포하는 봉토분의 호석에 대하여 그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삼국시대 영남지방의 봉토분에는 봉분 기저부에 대부분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호석열이 둘러져있다. 이 호석열은 지역이나 고분이 위치한 입지에 따라 1단 1열로 둘러진 것도 있고 2~3단으로 보강된 것도 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대형봉분을 축조할 때의 축조방법인 구획성토의 표시로 봉토의 색깔이 다른 점토를 깔거나 石列을 쌓는데, 이 구분선의 시작이 바로 호석이 되고 있다. 또한 호석은 봉토축조의 기준점이 되어 호석 안쪽으로 봉토의 版築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호석은 단순히 봉토의 유실방지를 위한 시설과 고분의 범위와 경계뿐만 아니라 봉토분 기획과 축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다. 기존에 조사된 많은 봉토분 호석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호석은 봉토 속에 묻혀 있던 것이 아니라 봉분의 외연기부에 노출되어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호석의 중요성을 간과한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더 세밀한 조사방법의 적용과 관심으로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자료가 확보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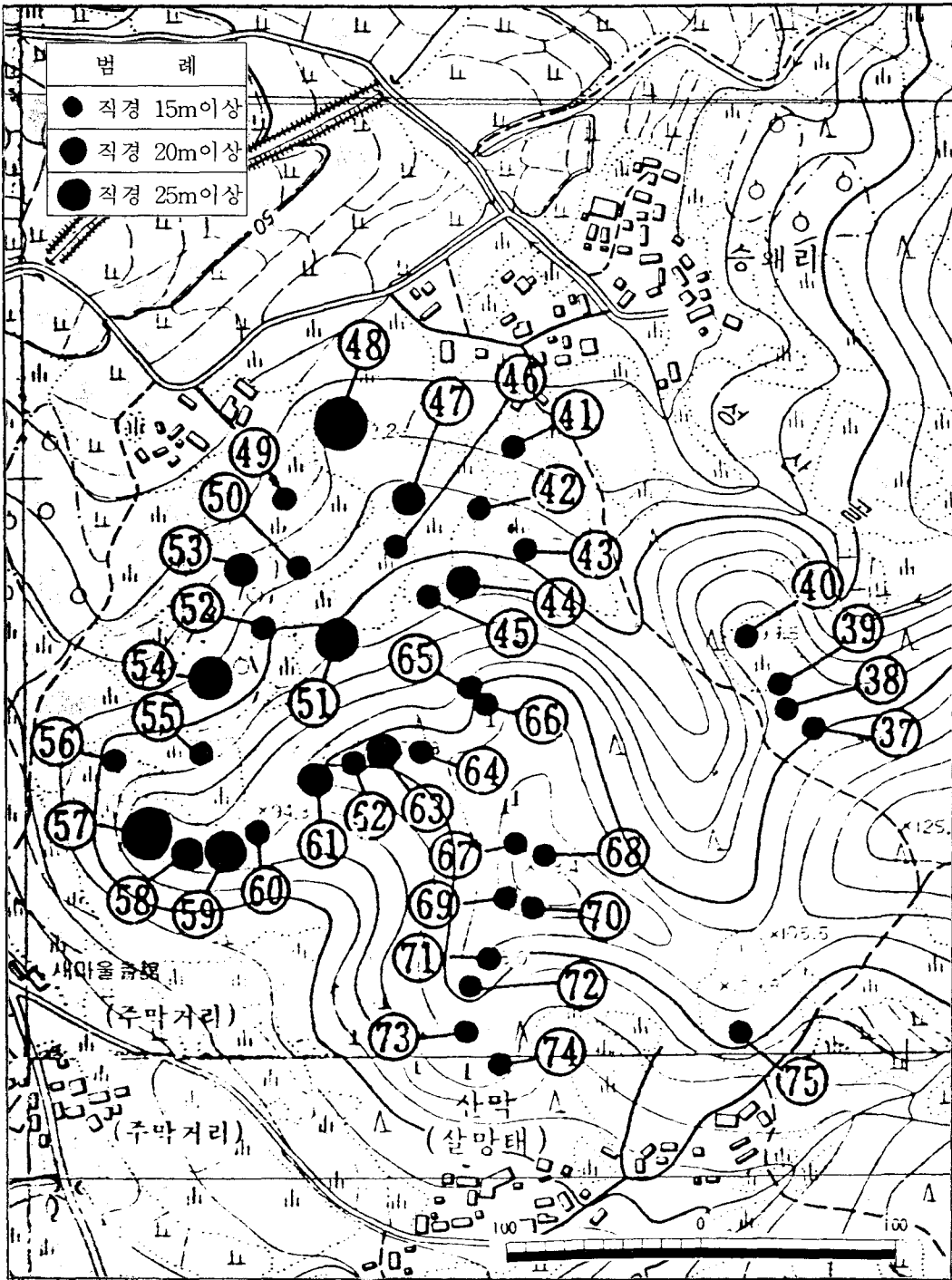
이렇게 삼국시대부터 봉분 외부에 노출되어 축조되었던 봉토분 호석은 통일신라시대 왕릉의 板石條 護石으로 발전하였고, 더 나아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방위 개념인 十二支像을 왕

릉 호석에 배치하는 신라 고유의⁵⁹⁾ 封土護石으로 이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왕릉의 호석 전통도 원래 삼국시대 봉토분의 露出護石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봉토분의 복원시에는 호석을 봉분기부의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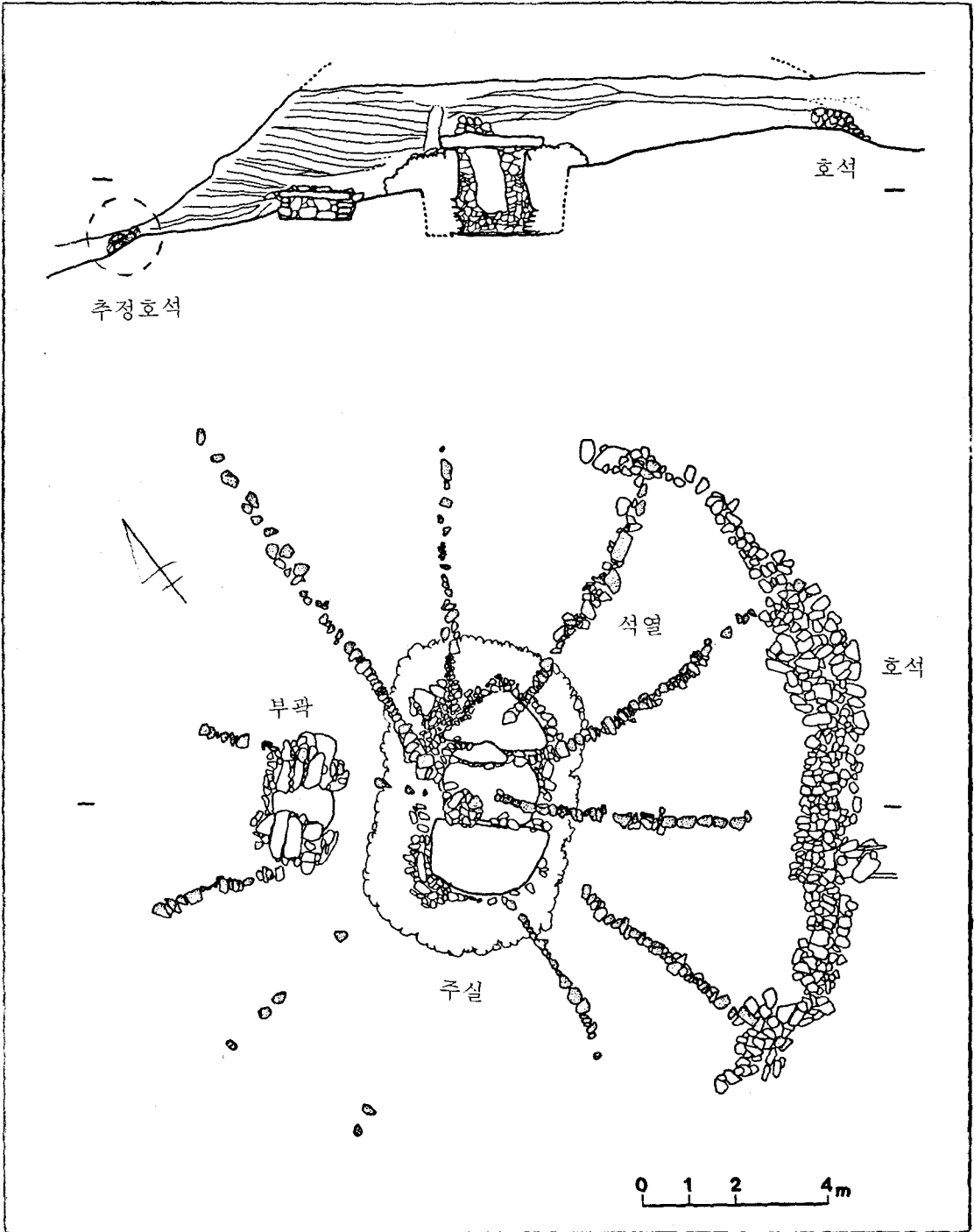
59) 孫景穗, 1962, [韓國을 中心으로 한 十二支生肖에 대한 小考] 『梨大史苑』 4, pp.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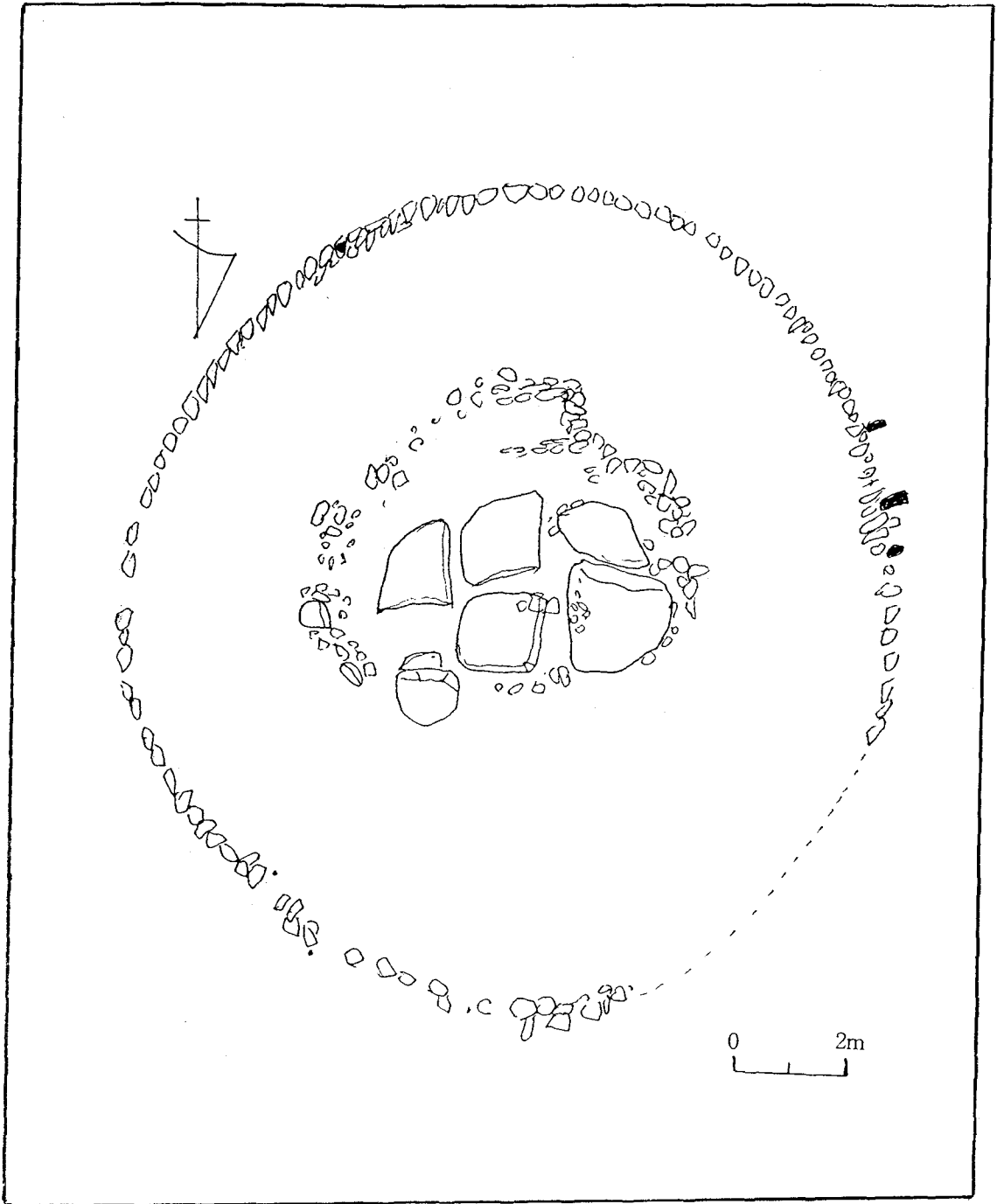
도면1. 성주 성산동 고분군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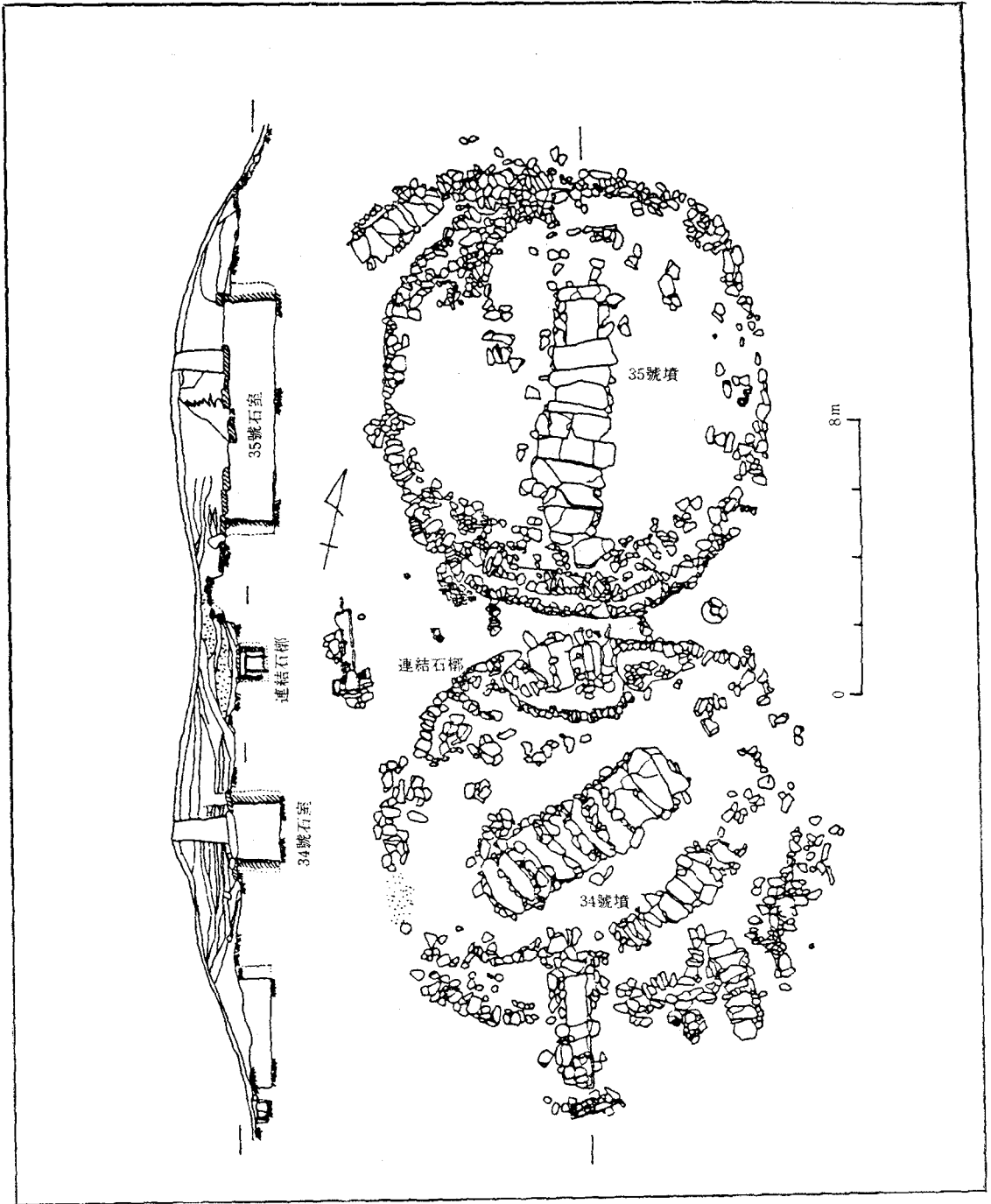
도면2. 기저부조사 고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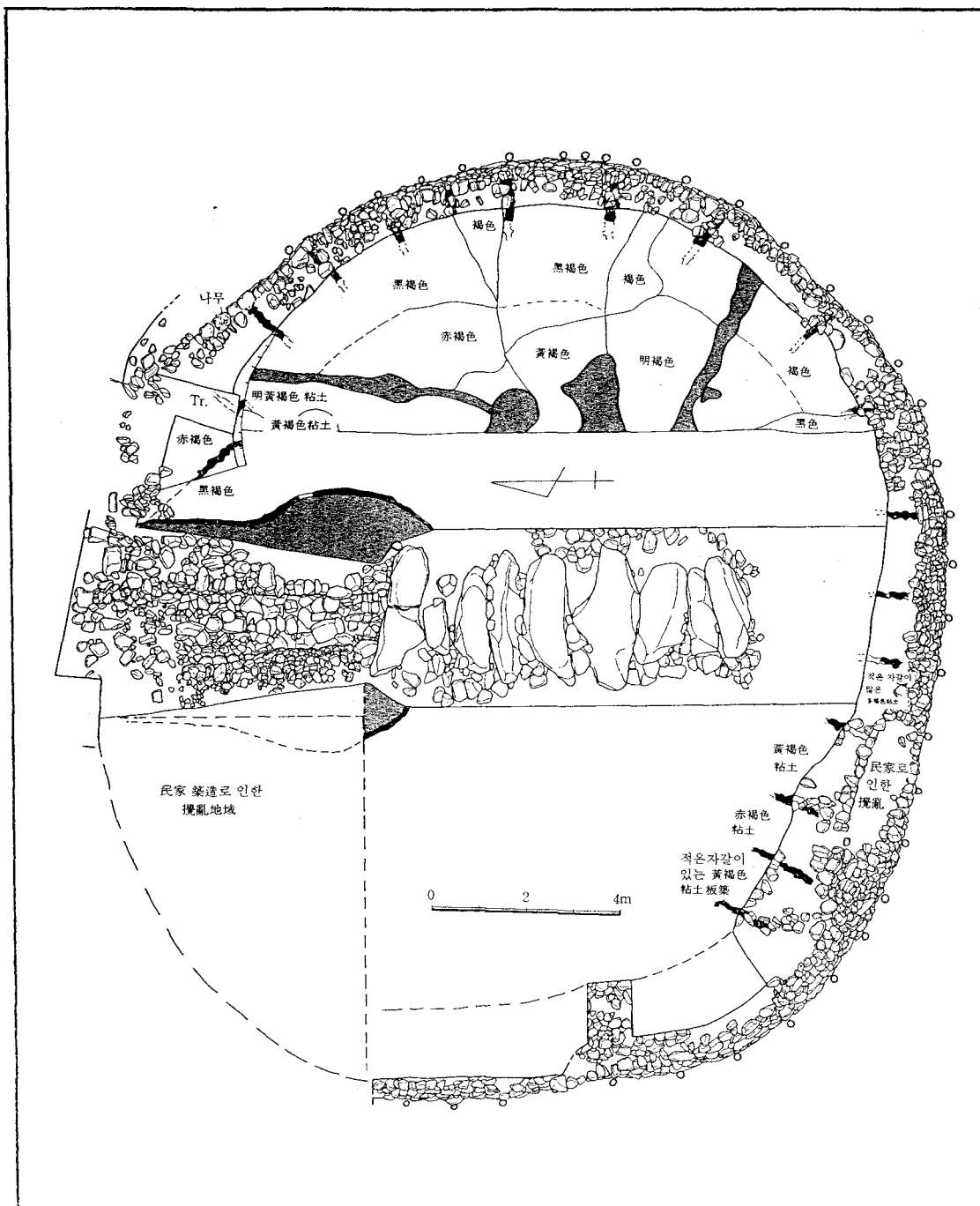
도면3. 성주 성산동 52호분 호석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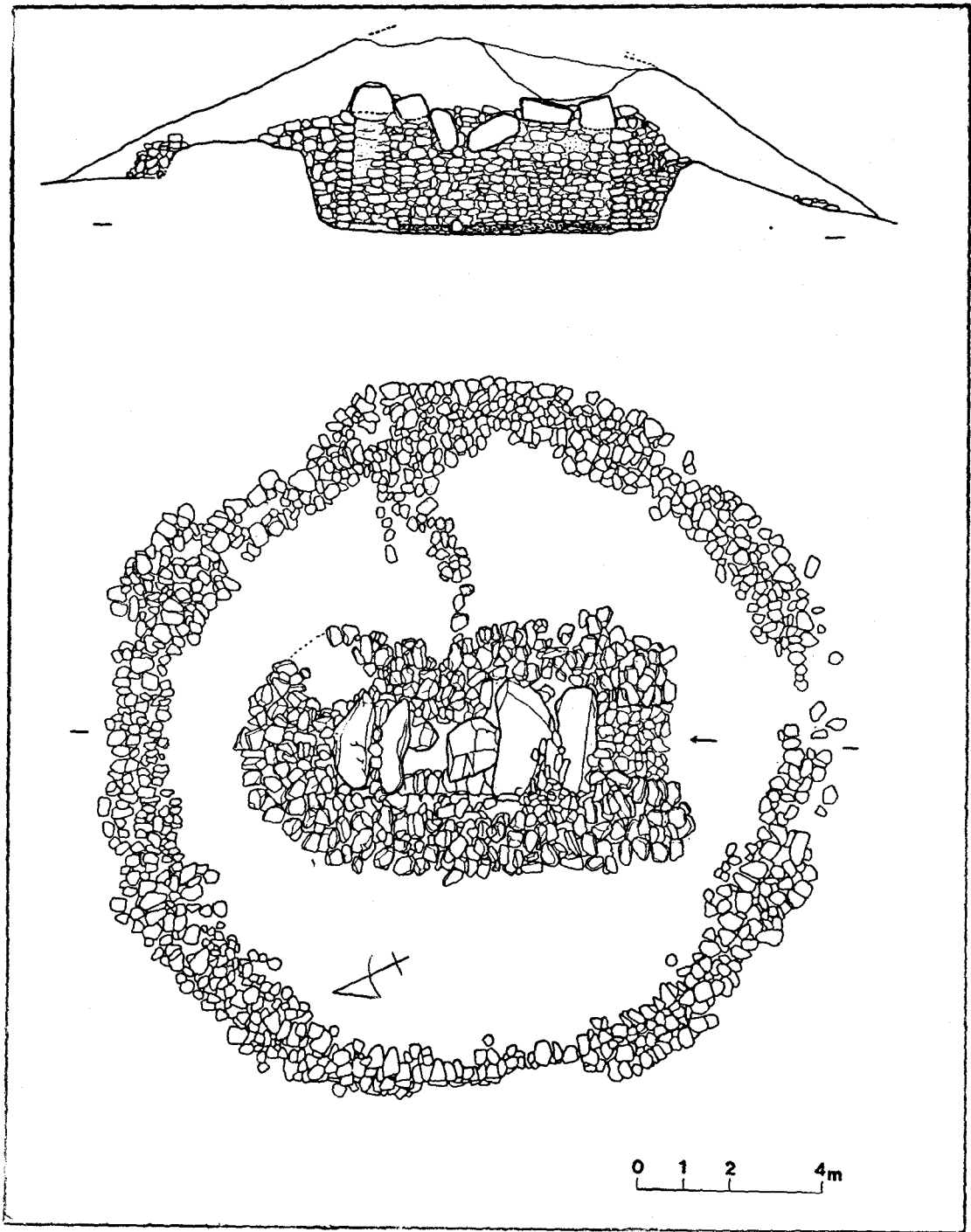
도면4. 성주 성산동 55호분 호석열



도면5. 고령 지산동 34·35호분 호석열



도면6. 창녕 교동1호분 호석열



도면7. 창녕 사리1호분 호석열

A Study on the Stone Circles of the Mound Tombs Dated the Three Kingdoms Period

-A New Discovery from Mound Tombs at Seongsan-dong, Seongju County-

Kim, Se-Ki

In the Yeongnam region, many clusters of large scaled mound tombs dated the Three Kingdoms Period have been found to be distributed over many places. Such mound tombs usually have stone circles. These stone circles function to prevent from tomb mound collapsing and they are designed to demarcate tomb boundaries. These stone circles have been discovered from mound tombs with vertical access, mound tombs with horizontal access, and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at the Gyeongju area. So they are considered to be widely adopted at the mound tombs dated the Three Kingdoms Period. It has very high possibility that the stone circles of the mound tombs might be originally exposed to the outside, which could be visible, although they have been buried with tomb mounds at the moment.

So I have begun to investigate features of stone circles of mound tombs very carefully upon the excavation of twenty-eight mound tombs at Seongsan-dong, Seongju County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excavated four mound tombs. Among the newly excavated twenty-eight mound tombs, some have small tomb mounds with 10m in diameter. Some have large tomb mound with 25m in diameter. So mound size varies from tomb to tomb. Among the thirty-three mound tombs at Seongsan-dong, Seongju County, twenty-seven tombs have turned out to have each stone circle. Only three tombs do not have any stone circles. Four tombs have been destroyed too much so that it is hard to check whether they have their stone circles or not. Through the above-mentioned examples, it is possible to say that in most cases, mound tombs at Seongsan-dong, Seongju County might have their stone circles.

Stone circles surround the boundary of the round or oval tomb mound as a whole. Two or three layers of stone, sometimes, one layer of stone, have been constructed to form stone circles. One stone circle has five layers which is 80cm high. These evidences strongly suggest that stone circles of the mound tombs dated the Three Kingdoms Period might be exposed to the outside of the tombs in most cases. And finally such a tradition to expose stone circles to the outside of the tombs might be developed to the twelve zodiac animals of the royal tomb as the tomb guards after the Unified Silla Period. Therefore in the future it will be desirable that stone circle should be exposed to the surface upon the reconstruction of the mound tombs dated the Three Kingdoms Period.